

## [ 종합·국제 ]

# 여야 사활 건 부평을, 아직도 ‘안갯속’

## ■ 4·29 재보선 판세

◇ 인천 부평을=이번 재보선의 승부처인 부평을의 판세는 아직도 안개속이다.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가 1~2위를 주고받는 상황이며 어느 누구도 확실한 우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호남 출신인 이재훈 후보가 지역적 기반이 없는데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낙승을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말엔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대형유세를 계획하는 등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흥미로운 낙승을 자신하고 있다. 흥미로운 낙승을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상승세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손학규 전 대표가 막판까지 지원유세를 펼치는 등 인천 부평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전주 완산 갑=전주 덕진은 무소속 정동영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선 가

4·29 재보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판세는 아직도 안개속이다. 날씨가 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 첨체 국면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등 각종 대형 이슈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표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가 격전지를 중심으로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투표율을 개봉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양당 지도부 주말 총출동, 막판 민심잡기

## 전주 덕진 정동영·완산 갑 이광철 우세

운데 민주당 김근식 후보가 주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지만 이번은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이에 반해 전주 완산 갑은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연대가 전주 표심을 흔들면서 역전에 성공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인지도와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투표 2~3일 전에는 완연한 우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경주=한나라당 정종복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친박(친 박근혜) 후보가 안정적인 우위를 보인다. 당의 조직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신 후보 측은 정 후보와

의 무소속 연대가 전주 표심을 흔들면서 역전에 성공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인지도와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투표 2~3일 전에는 완연한 우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진보진영 단일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투표율이 낮은 재선거의 특성상 조직력에서 우세한 정종복 후보의 승리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정수성 후보 측도 무난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경주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 전 의원과 정 후보가 대등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바닥 민심이 정수성 후보 지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북 경주 선거는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에 따라 막판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박 전 대표가 정수성 후보 지지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밝힐 경우,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울산 북=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 성과 여부가 최대 변수다. 후보단일화만 이뤄진다면 진보진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높은 반면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진보진영 단일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14년 만에 고향 방문에 나선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가 23일 합평나비대축제(4월24일~5월10일)가 열릴 합평엑스포공원 곤충나비생태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나비를 날리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24일 고향인 신안 하의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합평=위직당기자 jrwi@kwangju.co.kr

## 고향길 DJ “민주당 반드시 승리해야”

## 한명숙 고문, 전주 유세중 소개…DJ, 오늘 하의도 방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23일 전남을 방문하는 길에서 한 발언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 미묘한 과정을 낳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호남선 KTX 안에서 전주 지원유세에 가는 민주당 한명숙 고문과 조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 무소속 한두 명이 당선돼 복당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 고문이 전주 유세 중 소개했다.

한 고문은 또 “DJ로부터 ‘민주당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전주 시민들이 함께 손잡고 뜰풀을 풍져서 민주당을 밀어줄 때 ‘MB 악법’을 막고 잘못 가는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바로 잘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DJ 최측근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노코멘트”라며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당 관계자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당 입

장을 선 힘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군 사이에서 갈등하는 전주의 전통적 지지층 결집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동영 후보 측은 “지극히 원론적 얘기를 유세 도중에 확대 포장해서 말한 것”이라고 애써 축소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도 “DJ 스타일상 원칙적 얘기를 한 것을 들기 좋은 방향으로 들은 것일 수 있다”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14년 만에 고향 방문 길에 나선 김 전 대통령은 합평역에 도착 ‘제임 좋은 물론, 제임 이후에도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자와 정면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고, 5년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6년반을 감옥에 있었지만 전라도민의 애도적인 성원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데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일생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덕택으로 나랏일도 마쳤다”며 “우리는 힘을 합쳐 독재를 물리치고 고판 직전의 경제도 살렸으며 전쟁까지 했던 남북 간에 화해의 기운을 가져와 10년간 경쟁 없이 살 수 있었나”고 회상했다.

이날 합평역에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주승용, 박지원 의원, 이석형 합평군수 등 당원과 지지자 300여명이 나와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내외를 환영했으며, 김 전 대통령은 합평 다이너스티 CC에서 환영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후 나비축제장인 합평엑스포공원을 방문해 친환경농업전시관과 다육식물관, 국제곤충관 등을 둘러본 뒤 21년생 꽁나무를 기념식수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목포에서 지역민들과 만찬을 가졌으며 24일 오전 고향인 신안 하의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목포=이상휴기자 lsh@

## 미국민 48% “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오바마 지지율 64%

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이 올바르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8%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 44%를 웃돌았다.

같은 기관들이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이 올바르다’고 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들보다 많은

것은 2004년 1월 이후 처음이다.

2008년 10월 조사 때 ‘미국이 올바르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17%에 불과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이 비율은 36%로 상승했다.

이 비율은 지난해 12월에 잠시 멀어졌다가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다시 35%로 올라선 뒤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40%였다. /연합뉴스

## 평양 간 러 외무 “북핵 극적 타결 기대 안해”

평양을 방문 중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안구구 구성 등도 결의할 계획이다. /박정숙기자 jwpark@

/목포=임영춘기자 lyyc@

타르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

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당사국들은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3일 북한의 박의준 외무상과 평양에서 회담한 뒤 러시아 관영 이